

GM 군산공장 2차 희망퇴직 30명 불과

전체 680명 중 4% 수준 군산시, 퇴직자 지원책 논의 남은 근로자는 전환배치 바라 32개 시민단체 정상화 촉구



26일 오전 전북도청 앞 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GM 군산공장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 말 폐쇄가 사실상 확정된 한국 GM 군산공장 근로자 가운데 2차 희망퇴직 신청자가 30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폐쇄를 앞둔 GM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6일 군산시와 공장 노조 등에 따르면 노사 잠정합의안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시행한 2차 희망퇴직에 근로자 680명 가운데 4.4%인 30명 정도가 신청했다.

이는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부평이나 창원 공장으로 전환배치를 바라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3월 시행한 희망퇴직 때

는 강제 구조조정 불안감 등으로 군산공장 근로자 1200명 정도가 신청했다.

군산공장 노조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공장을 지키며 전환배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희망퇴직은 가정사 등으로 타 공장으로 가기 어려운 동료들이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희망퇴직 후 잔류

하는 근로자에게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어서 이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GM은 희망퇴직 대상자를 이달 말 확정 통보할 예정이며 이들은 1차 확정자와 같이 5월 말 퇴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북 시민·사회단체의 폐쇄를 앞둔 GM 군산공장 정상화에 대한 요구도 가속화되고 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등 32개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생존이 걸린 GM 군산공장을 당장 정상 가동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3일 한국GM 노사 간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며 “GM 군산공장 폐쇄를 전제로 노동자 희생만 강요당한 졸속 합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를 통해 GM은 국민 혈세 수천억원을 받게 됐지만 군산지역 GM 근로자 1000여명은 희망퇴직으로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노동자는 강제해고를 통해 길거리로 내몰렸다”며 “지역 정치권은 선거 준비에만 몰두하는 무능력의 극치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정부와 전북도는 당장 군산시민 생계가 달린 GM 공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고용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연합뉴스

고창군 소상공인 금융·친절교육

고창군이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친절교육을 26일 실시했다.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신용영 한국웃음치료연구소 본부장을 초청해 ‘친절이 경쟁력이다’를 주제로 펼쳐졌다.

교육 후에는 금융기관과 신용보증재단 등 융자기관에서 운전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절차와 제도안내, 신용보증서 발급 등에 관해 안내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군은 이날 교육에 참여한 적격자에 한해서 금융기관 융자 심사를 거쳐 3000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상환 융자와 4% 이내의 이자를 지원한다.

군은 지난 2010년 소상공인지원기금 관련 조례를 전북지역 최초로 제정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방부가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다.

이를 통해 555명의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127억여원을 금융기관에서 융자했다.

또 이자 7억 8100만원을 지원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융자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기자 phj@

향교·서원서 1박2일 체험·기싸움 놀이

익산시 교육·문화 체험 프로그램

익산시가 향교와 서원을 활용한 교육·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6일 익산시에 따르면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이 ‘함열향교의 사심(士心)’을 주제로 함열향교, 함라한옥체험마을, 함라면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 사업은 선현의 덕을 기리고 인재 양성에 나서는 한편 향교와 서원의 전통문화 정체성과 문화재 가치를 재발견하고 선비들의 삶의 지혜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재 활용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은 ‘선비의 시작은 동심’, ‘향교에서 느끼는 한국의 인식’, ‘함열(함라)에서 밥심’, ‘함열향교에 오면 노(NO)심심’으로 구성돼 있다.

선비의 시작은 동심과 함열(함라)에서 밥심은 익산시 소재 8개 초·중학생이 자유학기제와 연계 참여해 오는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조선시대 공교육 기관인 향교에서 옛 선인들의 선비정신과 충효정신을 체험하고 다양한 전통문화·음식을 체험함으로써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함양하게 된다.

향교에서 느끼는 한국의 인식은 오는 5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 체험프로그램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전통예절을 배우고 가훈을 만들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함열향교에 오면 노(NO)심심은 오는 11월 3일 지역주민들과 함께 우리의 전통놀이인 기싸움을 재현해 보고 풍물패와 대동 판국을 통해 일반시민들과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함께 즐기는 대동한마당 놀이를 제공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역 문화재인 함열향교가 지역 교육을 담아내는 현장, 시민들이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지속적인 지역문화 향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기자 yjy@

광양 세풍산단 2단계 축소 주민 반발 유상개발면적 10만㎡ 줄듯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에 조성 중인 세풍 일반산업단지 2단계 개발면적이 축소될 것으로 보여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25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세풍산단 개발을 맡고 있는 광양경제청은 세풍산단 2단계 유상 개발면적을 40만㎡에서 30만㎡로 줄이기로 했다.

광양경제청은 전남도 지방채 500억원으로 30만㎡의 토지를 매입하고 무

상으로 받거나 국유지에 해당하는 4만여㎡와 1단계 개발 때 남은 토지 6만 6000여㎡ 등 40여만㎡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세풍리 주민들로 구성된 세풍발전협의회는 광양경제청의 세풍산단 2단계 조성 계획에 대해 주민과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됐다고 반발한다.

양동구 세풍발전협의회 회장은 “주민들은 원안대로 개발하기를 원한다”며 “전체 개발면적이 240여만㎡에 달하는 데 개발면적까지 줄게 되면 결국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은 이어 “대다수 주민은 광양경제청의 개발면적 축소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른다”며 “주민들이 개발면적 축소에 대한 얘기를 듣고 반대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세풍발전협의회는 다음달 1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

이에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개발면적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40만㎡를 개발하는데 이 가운데 유상 개발면적

이 30만㎡고 나머지 10만㎡도 개발될 것”이라며 “추가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투자 유치조건도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풍산단은 광양시 일원 2.42㎢ 규모에 5458억원을 들여 기능성 화학 소재, 바이오 패키징 소재, 광양제철 연관산업 등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완공 목표연도는 2020년이다.

2015년 10월 착공한 1단계 부지 0.35㎢는 올해 2월 준공돼 분양 중이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설치 모습.

광양시,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설치 확대

광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상수도 지능형 옥외자동검침시스템(원격검침시스템)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AMRS)이란 검침원이 상수도 계량기를 육안에 의해 검침하지 않고 유·무선 방식으로 일정한 거리에서 디지털로 정확하게 검침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집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상수도 계량기를 검침

할 수 있어 잘못된 검침으로 인한 수도요금 민원 해소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특히 눈과 비 등의 기상상황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검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지난해 무거운 맨홀 뚜껑을 열고 검침하거나 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검침이 곤란한 수용가 199가구를 대상으로 설치한 데 이어 올해에는 230세대를 선정해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을 설

치했다.

또 앞으로도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일일이 개별세대 방문에 따른 측정시간 지연과 민원해소 등 수도계량기 검침 능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원격검침시스템 확대를 통해 수도검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IT 시대에 걸맞은 고품질의 상수도 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현재 기존 광양시 상수도계량기 수는 1만7247천에 이른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부안군, 노후 수도계량기 4200개 무상 교체

부안군 맑은물사업소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수도계량기 4200개에 대해 6월부터까지 무상 교체에 돌입했다.

교체대상 계량기는 13~40mm(8년 경과) 4000개와 50mm 이상(6년 경과) 200개로 4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군은 계량기 교체와 더불어 파손된 계량

기 보호통 및 기타 부대 장치도 함께 교체해 깨끗한 양질의 수도물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동절기 계량기 동파는 지난해 22건에서 올해 446건으로 급격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부안=서충열기자 scy@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

- 신안군 압해도 북흥리 1810㎡ 저수지앞 조용한생활적합 4700만원
-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 영산강 3136㎡ 전원생활적합 5700만원
- 곡성군 삼기면 대지와 전 681㎡ 광주서 30분 내 6천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전원주택 함평 해변면 대지 966㎡ 집 79㎡ 타마실에서 차로5분 1억5500
- 농성동 대지 156㎡ 집 96㎡ 1층전세 4천안고 1억4500

투자·매도·교환

- 곡성군 죽곡면 섬진강 압록부근 계획 관리지역 1439㎡ 팬션 등 적합 1억2천2백 전원주택 적합 4751㎡ 1억6천 임야 10512㎡ 1억
- 수목정(장례)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6645㎡ 경관종을 2억
- 수목원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8232㎡ 건평 1148㎡ 허가 10억
- 쌍촌동 소방도 대지 118㎡ 상가주택 적합 1억5천
- 나주 남평시내 상업지 2919㎡ 개발예적합 공시가 8억8천 매도39억
- 신안동 전대정문쪽 토지 160㎡ 주택 70㎡ 찻집등적합 1억7300
- 고흥 나로도부근 팬션 땅 9891㎡ 건평 267㎡ 객실 10개 7억6천
- 충장로 5가 도로점 상업지 490㎡ 상가적합 7억6천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창고등 적합 1억5백만원
- 장흥군-읍 장흥여중 부근 1층 빌라주택 2272㎡ 5억
- 전북 고창군 무장면 태양광부지 19753㎡ 5억9천
- 동구 충장로5가 인접 수기동 상업지 400㎡ 5억

상가건물

- 북동 5층건물 대지562㎡ 건평 1637㎡ 임대생활적합 14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대지 155㎡ 건물 263㎡ 은행 1억4천 매도 3억7천
- 충장로5가 요지 대지 261㎡ 5층건물 1128㎡ 은행 15억 매도 24억
- 북구 문흥동 대지 171㎡ 5층 상가주택 491㎡ 임대생활적합 7억6천
- 양동시장 대로변 땅 2902㎡ 주상복합개발적합 은행 30억 매도 67억
- 순천만 팬션 대대동 땅 332㎡ 건평 285㎡ 방 8년매출 1억선 은행 3억 매도 은행포함 6억47천 은퇴자 생활에 최적
- 양동 모텔-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시설종류 11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오피스텔

- 광주 동구 수기동 23-2번지
- 20층중 8층, 33평, 코너
- 전망좋은, 즉시 입주
- 내부 시설 완료
- 보 5백만원에 월50만원 임대가능
- 매매 - 9200만원 (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3605-5000

급 식당 임대

- 서구 쌍촌동 965-12번지 1층
- 약20평 보증금 1천만 월 90만
- 시설 : 에어컨, TV, 주방시설 완비
냉장고 기타비품 풀 완비 (약 4천만원 상당)
- 급 : 1천2백만에 양도
- 부동산 환영

감정가 40%이하 급 모텔

- 전남지방 방 15개
- 감정 5억6천 급 매매가
- 3억5천 담보제공가능

감정가 30%이하 급 모텔

- 광주 북구 방 30개
- 감정 11억 급 매매가 7억8천
- 현 법인소유 이전비 없음

문의 010-7527-74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6년

창사66주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스날**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